

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즉시		
배포일	2023. 6. 26.(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자연대 물리천문학부	문의	박제근 교수(880-6613)

강상관계 물리학 국제학회, 역대 최대 규모 개최

- 전 세계 750여명 과학자 참가
- 7월 2-7일(6일간), 송도서 개최
- 7월 2일(일) 오후 3시, '양자컴퓨터와 양자물질' 대중강연 열려

□ 강상관계 물리학 국제학회 개최

- 서울대는 오는 7월 2(일)-7일(금) 인천 송도에서 강상관계 물리학 국제학회(Strongly Correlated Electron Systems(SCES) 2023)를 개최한다. 이 학회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제근 교수와 자연대 학장 유재준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고, 국내에서 총 7명의 교수들이 학회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.
- 1992년 시작한 강상관계 물리학 국제학회는 매년 아시아-유럽-북남미 등의 대륙을 옮겨가며 개최되는데, 한국에서 단독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특히, 올해는 31번째 국제학회로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.
- 강상관계 물리학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양자물질 분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앞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로서,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상급의 연구력에 가장 가까운 양자과학기술 분야이다.

□ 역대 최대 규모 학회 개최

- 이번 학회에는 750명이 넘는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며, 700여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는데 이 가운데 500명은 외국 연구자들이다.

- 학회의 기초강연자 13명 중에는 양자물질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로서 김필립 교수(미국 국립과학원 회원, 2023년 벤저민 프랭클린 메달 수상), 정상욱 교수(2007년 호암상 수상), 손영우 교수(2018년 청암상 수상), A. Bernevig 교수(프린스턴대), A Georges 교수 (콜레주 드 프랑스) 등이 포함된다.
- 이 학회의 개회식 축사는 전 서울대 총장인 오세정 교수가 맡아서 하는데, 오세정 교수는 우리나라 강상관계 물리학 연구자로서 1세대 학자이다.

□ 양자컴퓨터와 양자물질 대중강연

- 학회 조직위원회는 한국 IBM사와 공동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대중강연을 7월 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. (포스터 첨부)
- 대중강연은 ‘양자컴퓨터와 양자물질의 현재와 미래’라는 주제로 미국 IBM사의 백한희 박사가 한다. 이 대중강연을 통해서 백한희 박사는 양자컴퓨터의 발전에 양자물질이 어떤 기여를 하는 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.
- 본 대중강연은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여 할 수 있으며,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 링크(<https://www.sces2023.org/>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